

남성의 폭력성 폭로한 '내부 고발자'의 목소리

《따로와 끼리—남성 지배문화 벗기기》 펴낸 정유성 교수

정유성 교수는 우리 사회가 맞이한 위기의 뿌리에는 남성의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욕망이 가족해체, 학교붕괴, 지연·혈연·학연주의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정교수는 남성 지배문화에서 벗어나 인간과 인간이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되찾을 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억압과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유성 교수(45, 서강대 교양학부)가 펴낸 《따로와 끼리—남성 지배문화 벗기기》(책세상)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남성은 '악의 화신'이다. 도대체 남성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기에 악마라는 낙인이 찍힌 걸까. 더구나 악마라는 낙인을 찍은 장본인이 바로 악마의 종족인 남성이 아닌가. 이 책은 한 '내부 고발자'가 남성지배 사회를 향해 던진 자기성찰의 칼날이다.

위기에 몰린 남성 지배사회 해부해

정교수에 따르면, 지금 여기 우리의 삶터나 사람들의 본성은 참담하다. 가족해체나 학교붕괴에서 드러나듯 공동체의 터전이 무너지고 환경오염으로 삶터마저 황폐화되고 있다. 정치판은 '진흙밭 개싸움'으로 질퍽하고 혈연·지연·학연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런 총체적 위기는 사람의 위기라는 것이 정교수의 진단이다.

“사람의 위기는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옵니다. 바로 남성의 위기, 남성성의 위기, 남성 지배문화의 위기죠. 하지만 위기의 근원인 남성들은 스스로 눈과 얼굴을 가린 채 나 몰라라 하며 다른 것에 문제를 떠넘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정교수는 남성 지배문화를 '따로와 끼리'로 정의한다. 이는 “피붙이, 학교붙이, 땅붙이들의 '놈들끼리', '남'은 따돌리는 '따로'를 형성해 삶을 어지럽히는 잘못된 세상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일컫는다. 남성들이 여성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려 하고, 자라나는 세대를 나이로 눌러 규제하려는 것이 그 예다. 그는 영화 <친구>에서도 남성 지배문화의 어두운 그늘을 본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친구>는 아버지 결핍증의 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전근대적인 덕목인 의리를 통해 잃어버린 강한 남성의 세계를 동경하죠. 이 영화에서 여성은 성적인 대상으로 전략하고 의리를 위해 모든 약들은 미화됩니다. 남성의 미성숙성을 그대로 드러낸 영화죠.”

정교수는 시몬 드 보바르의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명제를 뒤집어 '남성 다움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남성이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는 늘 여성에 대한, 다른 남성 및 스스로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내재돼 있다. 여자 아이들은 어머니를 거울로 삼아 성 정체성을 확립하지만, 남자 아이들은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틀에 박힌 남성다움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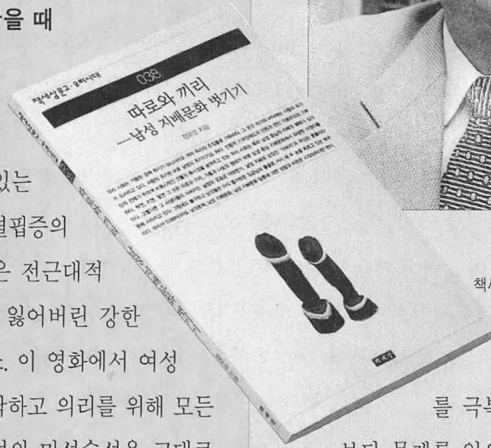
“남성성은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학교에서 강화되며 군대에서 최종적으로 완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자연스럽게 성차별의 문화를 내면화합니다. 특히 학교나 군대는 감시와 처벌의 메커니즘을 통해 남성중심적 지배문화를 습득하게 하는 공적 공간입니다.”

이런 남성 지배문화를 반성하면서 등장한 것이 남성학 담론이다. 하지만 정교수는 두가지 점에서 여기에 비판적 거리를 둔다. 남성학이 모든 것을 성적 문제로 환원하며 남성의 존재성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교수는 남성학 담론을 넘어 '성평등주의'의 대안을 제시한다.



정유성 교수

책세상/B6변형/136면/3900원



“남성 지배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남성들 자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따로와 끼리의 문화를 타파하고 서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는 결국 평등한 인간, 조화로운 남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뜻합니다.”

'따로와 끼리'를 넘어 '나눔과 섬김'으로

남성인 정교수가 남성 지배문화의 무덤을 파는 일에 발벗고 나선 데는 그의 개인적 체험이 묻어 있다. 그는 유신시절 야학활동을 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의 참담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고, 독일 유학시절에는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인식에 이르렀다. 국내에 돌아와서는 여성학 연구자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성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가꾸기 위한 실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교수는 이번 책이 성차별의 관점에서 '우리 안의 파시즘'을 들춰낸 작업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의 말을 바꿔 “남성들은 날마다 '젠더'적 의미의 자살을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로 이 책을 마무리한다. 남성이 자신 안의 악마성을 도려내고 평등한 인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충고다. — 박천홍 기자